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

서로 도와주고 돌보는 제주사람들을 보며 감명 받아

데스크승인 2013.04.28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사제 서품을 받은 PJ 맥그린치 신부는 1954년 25살의 젊은 나이에 제주에 왔다. 60년 동안 주민들과 동고동락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다른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왔다.

“내가 부임할 당시 4·3으로 인해 과부가 많았습니다. 홀로 살던 할머니가 기아 상태로 발견돼 방에 모셔왔는데, 방이 부족하면서 이어 붙이고 또 붙여서 이상한 모양의 집이 됐죠. 이 집이 성이시들 요양원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는 목축업을 위해 금악 중산간 허허벌판에 사무실용으로 돌집을 지었고, 이 돌집에 방을 마련해 헐벗고 굶주린 노인들을 수용해 보살펴 왔다.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돌집은 양로원이 됐고, 지금은 요양원이 된 사연을 얘기했다.

1962년 한림수직사를 세운 사연도 애뜻하다. 부산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다며 인사를 하러 온 젊은 여성이 얼마 후 사고를 당해 유골로 돌아온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양털 스웨터를 잘 짜는 수녀를 모셔와 여성들을 가르쳤다.

양 2800마리에서 생산한 양털로 짠 수제 스웨터는 서울의 호텔 매장에서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

1200여 명의 처녀들이 뜨개질로 돈을 모아 시집을 갔다. 한림수직사는 제주양모산업을 이끌었으나 1990년대 화학섬유가 혼용된 스웨터가 대량 생산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공장 터는 한림성당에 기증됐다.

그는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바쁜 농번기에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제주 사람들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도움을 받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죠. 이웃 사랑의 실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과거도 민들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목장과 사료공장, 요양원과 복지의원 등을 아우르고 있는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에 대해 그는 “1962년 협회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 의해서 또는 천주교 선교단체가 아닌 ‘농민의 자립을 돕는다’는 기본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맥그린치 신부는 2년 전 현역에서 은퇴했다. 그는 “그동안 바쁜 일로 읽지 못했던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며 말을 맺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